

전주시 덕진공원의 장소성

김연금* · 성종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The Placeness of Deokjin Park in Jeonju City

Kim, Yun-Geum* · Sung, Jong-Sang**

*The Institute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Deokjin Park in Jeonju City was the site of a pond during the Koryo Period. Although Jeonju City has developed rapidly in modern times, Deokjin Pond was preserved and was developed into a park. It can be theorized that Deokjin Pond's latent character has made it possible for it to adapt to the changes it has undergone through the years.

In this study, the placeness of Deokjin Park is determined by examining its role in the adaptation process. Placeness can be determined by examining the objective character of a certain environment and the subjective experience related to it. For this paper, documents about the history of Deokjin Park were examined so that the facts related to it c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a number of Jeonju citizens were asked about their memories of Deokjin Park since memories reveal people's subjective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eokjin Pond is an ideal space for Feng Shui. It is a holy place because the tomb of the founder of the Chosun Dynasty is close to it. In addition, it has scenic value as it is part of the Jeonju Palkyoung (eight sceneries). To this day, we can see people washing their hair in the pond, proof that Deokjin Pond is still the subject of folk beliefs. When Korea was under Japanese rule, Deokjin Pond became Deokjin Park because of its ideal location, scenic value, and grand possibilities as an amusement center. Over the years, though, its scenic value decreased after the death of its pine trees. Jeonju City, however, was able to revive the park's charm though a series of renovation projects and through the addition of several facilities. Deokjin Park is now surrounded by many cultural buildings. The significance of Deokjin Park can be expected to evolve with these changes. This study helps to predict

the future of Deokjin Park and to elucidate the importance of landscape architect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an "evolving place."

Key Words: Adaptation Process, Evolve, History, Memory, Renovation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주시의 주요한 문화적 자원인 덕진공원은 고려시대 때 풍수적 필요로 조성되었다. 관개수 확보나 감상 같은 이유로 조성된 여타 연못들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발생 기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공원으로 편입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도 다른 공원들의 조성 맥락과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시대와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덕진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전주시 또한 우리나라의 다른 많은 도시들처럼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급변화 속에서 연못이 사라지지 않고 공원으로 남아 있는 것은, 더욱이 전주시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¹⁾은 덕진공원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가능성들로 인해 변화에 적당하게 적응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시적 관점에서, 덕진공원이 시대적·공간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형성되었을 장소성을 읽고자 한다. 장소(place), 장소감(sense of place), 장소성(placeness)은 인간과 환경을 분리하여 보는 논리 실증주의적 입장에 대한 반향으로 대두된 현상학적 개념들로서 체험과 관련된 것이다. 이규목(1988: 44)에 따르면 "장소란 인간 의도와 자연 질서가 융합된 것이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 체험에 관련되는 의미 깊은 중심"이다. 그리고 "도시의 형태와 외관, 활동 같은 가시적인 요소들과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비가시적인 이미지와 관념들이 결합해 장소를 형성하게 되고, 그 장소가 특별한 상징과 의미를 부여받게 되어 장소 고유의 장소성이 형성된다"(이규목, 2002: 134-135). 이석환(1988: 45- 51)은 "장소감은 개인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 부여하거나 또는 생성(획득)된 장소 관련 의미이고, 장소성은 집단적 국면의 장소 정신과 개인적 국면의 장소감 간의 변증법적 생성물"이라고 이들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리들을 볼 때, 객관적

인 환경의 속성과 환경과 관련된 주관적 체험 모두에 관심을 가질 때 장소, 장소감, 장소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랜 역사를 갖는 덕진공원의 장소성을 통시적 입장에서 읽는데 있어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는 역사와 덕진공원에서의 체험을 통해 형성된 개인과 집단의 기억이라는 두 가지 투영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아브람슨(Abramson, 1999: 78-83)의 구분을 참고하자면, 역사는 과거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기억은 경험적이고 지역적이며 평범하고 일상적이다. 역사가 전체적인 것이라면 기억들은 다수적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덕진공원의 장소성을 입체적으로 읽는데 적당한 투영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덕진공원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덕진공원에 대한 집단과 개인의 기억을 조사하여 덕진공원의 사회적 적응 과정을 파악한다.

둘째,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덕진공원의 장소성을 읽는다.

II. 연구의 방법

역사와 관련된 자료로는 동국여지승람과 조선왕조실록 같은 사서, 과거의 행정문서, 신문, 지도 및 사진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집단의 기억과 관련해서는 민담 및 설화 등을 수집하였고 개인의 기억과 관련된 자료로는 문학작품, 개인의 일기와 면담 등을 이용하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덕진공원에 대한 개인들의 기억은 다를 것이라 여겨져 면담 조사는 덕진공원에서 만난 전주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별로 실시하였고, 가능한 한 남, 여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총 13명을 면담 조사하였다. 1명당 면담 시간은 20분 정도였으나 경

우에 따라 2회 이상의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면담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조성된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양상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Ⅲ. 덕진공원의 사회적 적응 과정 및 내용

1. 근대 이전(1900년대 이전)

1) 비보풍수로서 덕진제의 조성

덕진제의 조성 시기와 이유는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다. “풍수지리설이 활기를 띤던 고려 때, 전주의 땅이 서북쪽으로 열려 있어 땅의 기운이 음지인 서북쪽으로 빠

져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이 지역 사람들이 동쪽의 건지산과 서쪽의 가련산 사이에 커다란 못을 팠다고 한다”(신정일, 2004: 32).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 도성방위를 위하여 늪을 만든 이래 자연현상으로 현재에 이른다”(전주시, 1986: 589). “도선(道詵) 대사가 전주의 지세가 북쪽이 공허하여 기맥이 흘러 나간다고 하였다 해서 이를 막기 위해 건지산과 가련산을 연결하여 큰 제방을 쌓아 만들었다”(한국한글학회 편집부, 1981: 354) 등이 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고려시대 전후로 비보풍수로 조성되었다는 데서는 일치한다. 전주의 주산인 건지산이 가련산과 이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지지 못해, 서북방이 열려 있는 형세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숲정이, 진북사 등 여러 풍수적 장치들이 마련되었고, 덕진제도 이러한 풍수적 장치 중의 하나였다(김두규, 2004: 326)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1481) 전주부 산천조에도 “德津池在 北十里府之勢 乾維空缺 氣脈淺焉故西自 可連山. 東屬 乾止山 築大堤以止 之名德津 周九千七十三尺(덕진연못은 부의 북쪽 10리에 있으며 전주의 지세가 북서쪽이 공결하여 바로 그 지점에서 기맥이 누설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서쪽으로 가련산에서 동쪽으로 건지산으로 큰 제방을 쌓아 그 누설을 막고 이름을 붙이기를 덕진이라 하였으며 둘레가 9천 73자이다)”라고 쓰여 있다.

2) 성소로서의 건지산과 덕진제

덕진제를 전주시 풍수상의 의미 구조로 해석할 경우, 음인 덕진제에 대비되는 풍수상 중요한 의미소는 양으로서의 주산이다. 전주시의 풍수구조상 주산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위에서 살폈듯이 대개는 건지산을 들고 있다. 그러나 건지산을 주산으로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있다. 진산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에 비추어 건지산이 외관상 전주와 같은 대도읍의 진산으로서는 너무 미흡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호남읍지(湖南邑誌)」와 「완산지(完山誌)」에는 옛날 전주의 진산은 기린봉이었으나 언제부터 건지산이 전주의 진산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글이 나온다. 최창조(1990: 241-246) 역시 전주의 혈치를 풍수상으로 기린봉과 승암산 자락 아래로 보고 건지산이 주산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건지산을 주산으로

표 1. 면담자들에 대한 개요

연령대	이름(성별, 나이)	개요
20-30대	이석희(남, 23세)	연화정 매점 아르바이트생, 덕진동에서 태어나고 계속 거주,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
	윤영란(여, 35세)	주부, 전주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
	김병수(남, 35세)	대학까지 전주에서 다님, 서울에서 3년 정도의 직장생활 후 다시 전주시에 거주
40-50대	이행직(남, 50세)	덕진공원 근방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
	신정일(남, 50세)	전주시의 향토사학자
	안경례(여, 54세)	전주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주
	장정숙(여, 55세)	주부, 전주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주
	최순원(여, 56세)	타지역에서 태어나 결혼 후 전주에서 계속 거주
	진동규(남, 59세)	교육위원회 의원,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시에 거주
60대 이상	송완철(남, 65세)	전주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주
	이정구(남, 67세)	중문 매점 주인, 덕진공원 옆에서 계속 거주, 4회에 걸쳐 면담
	이인철(남, 76세)	사)체육발전연구회장
	박숙양(여, 79세)	전주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주

로 보는 것은 조선왕조의 개창자들인 이씨들의 조상묘소가 건지산²⁾에 있기 때문에 이를 추대하여 건지산을 진산으로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김두규, 2004: 309).

이씨 시조 묘소가 있는 건지산을 주산으로 추대하려는 의도는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전주지도(1872년 작성)와 완산지에 수록된 19세기 전주지도 등 조선시대 지도들에서도 읽을 수 있다. 건지산은 비록 작은 산인데도 강조되어 있고 산줄기가 현재의 덕진연못 앞까지 연결되어 있다. 또한 덕진제가 명확히 표시되어 건지산과 가련산을 이어주고 있다. 따라서 건지산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산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이씨 왕조의 시조묘가 있는 입지상의 중요성과 연관된 성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성소인 건지산은 사냥, 벌목, 개간, 경작, 건축 등이 금지되는 봉금지역(封禁地域)이었다. 그런데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중종 20년(1541년) 8월 전라도 관찰사 홍경림이 올린 등장(等狀)에서 덕진제도 봉금지역이었음을 찾을 수 있다. “본부(本府)는 우리 태조의 왕실이 발상한 지역인데 (중략) 나무꾼을 금단하고 경작을 금단한 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랜데, 폐조(廢朝: 연산군) 때에 총애 받던 녹주(綠誅)가, 건지산 안팎 계곡과 덕진제



그림 1.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72년 전주 지도
자료: 전주역사박물관편, 2004: 16.

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개간한 것을 반정 후에 예전처럼 도로 묵혔습니다. (중략) 예전처럼 경작을 금단하고 도로 묵혀 왕실이 발상한 고장을 가꾸게 하소서”. 추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보존된 숲은 덕진연못이 덕진공원으로 변모하는데 있어 주요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민간신앙의 공간으로서 덕진연못

이 당시의 덕진연못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해석은 성황신앙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명, 풍요, 재생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물에 대한 제의는 아주 오래되었고 조선조에 이르면 산천단, 산천성황의 제도가 확립되었다(정진홍, 1994: 149-164). 근래 문화 및 한국사학회 관련 몇몇 연구자들은 성황신앙과 덕진연못의 관련성을 찾고 있다. 2004년 덕진공원에서는 용왕제 재현 행사와 관련 학술대회도 열렸다. 이 대회에서 김방룡, 송화섭, 강영경은 덕진연못은 용왕이 사는 처소로 여겨졌었고 고려시대부터 용왕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김방룡(2004: 21-22)은 1935년 덕진연못가에서 발생했던 종교인 창해수교(蒼海水敎)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전부터 덕진연못이 용왕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송화섭(2004a: 69)은 용왕제는 불교와 관련을 가지며 전주가 불교의 택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라는 논리 속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강영경(2004: 79)은 덕진연못 옆 덕암마을 주민들 사이에 전해오는 구전을 내세우고 있다. 구전을 간략히 정리하면 “연못 북동쪽 다리목에 용궁각이 있었고 용궁각을 관리하는 자인 용화할머니는 용왕을 모시는 보살로서 용왕제 때 용궁각에서 치성을 올리고 나서 덕진연못으로 나아가 집배를 타고서 물위에서 용왕굿을 거행하였다”는 것이다.

굳이 성황신앙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많은 물이 담겨져 있던 덕진연못은 민간신앙의 공간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근거로 단오제의 물맞이와 방생을 들 수 있다. 단오날 오시에 목욕을 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속신이 있었고 덕진연못은 속신이 이루어지는 장이었던 것이다(송화섭, 2004b: 130-131).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5월 단오면 많은 이들이 머리를 감는다. 면담자 김병수(남, 35세)씨는 어려서 병을 앓을 때 덕진

연못에서 방생하라는 무속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덕진연못에 빠진 막걸리 병 속에서 자란 붕어를 먹고 죽을병에 걸렸던 남원 부산가(富産家)의 자당이 살아났다는 구비문학(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276-277)도 주술적 성격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다.

4) 명승지로서의 덕진연못

경관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볼 때, 굳이 정치적, 종교적 의미 차원이 아니더라도 넓은 수면적과 수변경치로 덕진공원은 중요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덕진연못 북쪽에 있는 전주이씨화수각(全州李氏花樹閣)은 100m 정도 떨어져 있어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전에는 연못 감상을 위해 만들어진 승금정(勝金亭)이라는 전각이었다고 한다. 조경단(肇慶壇)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재곤이 조경단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중수하여 전주이씨 화수각으로 개칭했다는 것이다(전주문화원, 1988: 69).

승금정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부터 전해져 오는 전주팔경(全州八景)과 부성삼화(府城三花)도 명승지로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³⁾. 전주팔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시가 전해져오고 있다. “풍월정자에 앉아 저녁노을과 달밤을 끼고 뚝뚝기 우는 호면의 피리 실은 어화에 젖은 채 대안의 승금정을 내다보는 연꽃풍경은 부성의 비파호답다.” 덕진연못 둘레가 9천 73자였다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따라 당시 외형을 추정했을 때, 1자를 30cm로 보고 환산하면 2,722m로 현재(향측도면)보다 1,500m 길었고 화수각 앞까지 펼쳐진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봉금지역으로서 소나무가 울창했을 것이다.

2. 20세기 초기, 일제강점기

1) 사설 덕진공원의 조성

덕진연못이 “공원”이라는 이름을 얻고 부족하나마 공원 형태를 갖춘 것은 1900년대 초로, 전주시의 변화 속에서 이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주부에서 북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덕진연못은 전주시의 외곽이었다. 그런데 성곽도시였던 전주부는 동학혁명과 일제의 식민도시 건설 과정을 거치면서 확장되었고, 이와 함께 덕진연못의 지리적

위상도 변하게 되었다(그림 2 참조).

1894년 동학혁명으로 성곽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1907년과 1910년 사이 전군가도 등 성곽을 관통하는 도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군가도는 덕진연못 앞까지 이어졌는데, 일제가 전주평야에서 수확된 미곡을 군산항까지 직송하기 위해 개설한 4차선 신작로(新作路)였다. 군산항으로 수송된 미곡은 오사카로 반출되었다(김현숙, 2004: 165). 이 전군가도는 1907년에 착수되어 1908년에 완공되었다. 이와 함께 제2기 시구개정 기간(1913~1923년)이었던 1914년에는 전주에서 이리간 비정규 노선인 협계 간이철도가 전군가도의 오른쪽으로 나란히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1914년 11월에는 덕진연못 남쪽에 덕진역이라는 명칭으로 간이역이 개시되었다(한국한글학회 편집부, 1981: 354).

전군가도 건설과 덕진역 설치의 전주부에서 덕진연못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주었고 전주부의 확장은 잠재적 수요층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역이 조성되고 3년 뒤인 1917년 전주의 유지였던 박기순⁴⁾은 덕진연못 일대 국유림 25,443㎡(7,710평)를 30년 임대 허가 받아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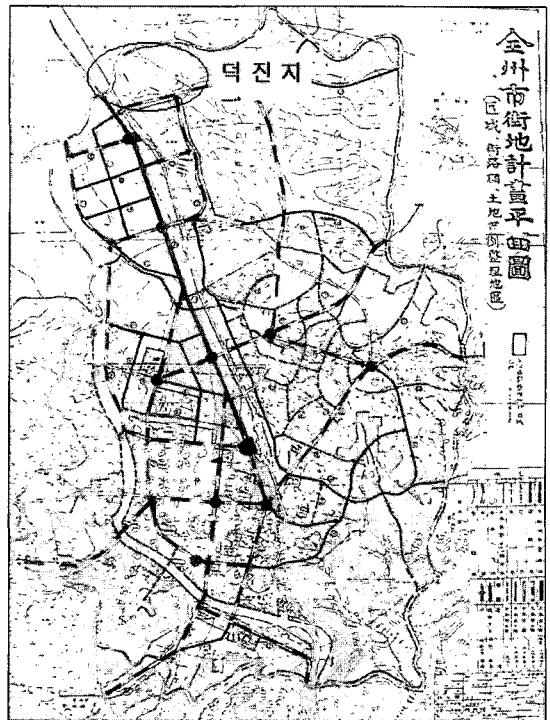


그림 2. 1938년 전주 시가지 계획 평면도

향정을 짓고 사설공원으로 개장하였다. 면담자 이인철(남, 76)씨는 박기순이 덕진연못 주변에 온천 등을 짓고 위락단지로 개발하려 했다는 구전을 연구자에게 전달해주었다.

2) 덕진공원과 공설운동장

덕진공원이 많은 시설을 갖추게 되고 제방이 정비된 것 또한 도시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1927년 전주-이리간 경편철도열차는 철도국에 매각되고 1929년 전주-이리간 정규철도가 개설되었다. 고사동에 있던 전주역은 노송동 지금의 시청자리로 이전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면당국에서는 덕진역에 인접한 덕진연못을 포함해서 현 전북대학교 부지 일대에 화단과 산책길 같은 공원시설과 공설운동장 건립을 추진하였다. 재정이 부족하여 일본인 미야자키(宮崎吉藏)씨가 5천원을, 박기순씨가 3천원을 기부하여 11정8반의 면적으로 정구장, 야구장, 육상경기장을 조성하였고, 제방을 다시 짓고 일주도로 1,800m를 만들었다(전주면 작성의 덕진공원과 운동장 사무처리 서류, 1929년 9월 27일). 1929년 총독부 제출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에서는 “전주의 교통, 산업, 교육 등 기타 제반이 발전하였으나 시내에는 공지가 부족하여 공중이 산책, 운동, 체육보건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조성의 목적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1932년 박기순은 자신의 사재로 시설했던 사설 공원을 당국에 기증하여 국립공원으로 포함시키고 사유지를 기부하여 취향정 유지비로 충당케 하였다(전주문화원, 1988: 71). 전북대학교 부지에 있던 공원시설과 공설운동장은 없어졌지만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앞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덕진공원비’가 아직도 있다.

이 당시 근대화의 물결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계획법⁵⁾ 제정에 대한 요구와 함께 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새로운 공원 조성은 어려웠고 자연경승지 또는 삼림 등 용지 취득이 손쉬운 장소들이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강신용, 1995: 78). 덕진공원도 이러한 경향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갑오경장 이후 운동경기를 신교육으로 이해하고 중요하게 다루었던 시대적 분위기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⁶⁾.

3) 덕진공원의 경관과 이용: 경색이 좋은 덕진공원.

운동경기

면담자 이인철(남, 76)씨의 증언에 따르면 1929년 일주도로 조성 시 덕진연못의 외양이 갖추어졌다고 한다. 그 전까지는 제방이 높지 않고 연못의 물도 얕으면서 넓게 퍼져 있었으나, 제방을 높게 쌓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현재 연못의 모습과 유사해졌다는 것이다. 1938년에 수립된 시가지 계획도⁷⁾의 덕진공원의 평면과 면적을 현재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연못은 전북대학교 쪽으로 150m 정도 더 퍼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 사람들은 덕진공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느꼈는지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다. 그런데 다행히도 연구자는 故이상말씨⁸⁾의 일기장에서 덕진공원에 대한 묘사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1916년 5월 21일 일기 내용이다. “10정보(町步) 남직한 연못이 있어 배가 이리저리 떠 있고 그 주변으로 송림이 여러 리(里)로 늘어져 무성한 수목 가운데 연못 주변으로 두서너 채의 건물이 있어 대단히 경색(景色)이 좋은 곳이다. (중략) 오늘 자전거 경기가 있었다”. 이 글에서 소나무 숲 경치가 좋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도로와 역의 신설뿐만 아니라 우수한 경관도 공원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더불어 1929년 경기장 조성 전에도 덕진공원 주변에서 운동경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29년 공설운동장 조성 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동경기와 연계되어 이용되었을 것이다. 1939년 5월 5일 동아일보에는 “명승 덕진 호반에서 자전거 경기회. 오는 13, 14 양일 개최”라는 기사가 실렸다. 1927년생인 최근무씨는 일제시대 걸어서 덕진연못으로 학교소풍 다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전주시백년사편찬위원회, 2001: 73). 현재에도 단오제면 덕진공원을 찾아 머리를 감고 그네타기 같은 놀이를 즐기는 이가 많듯이, 당시에 단오제 같은 세시 풍속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공원 이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3. 해방후-1960년대

1) 덕진공원 방향으로의 전주시 확장과 덕진운동장 폐쇄

해방 후 전주는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6.25사변으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1954년 이후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

였다. 1954년 9월 24일 전북일보 기사에 따르면 “1954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에 3백동을 넘는 주택이 건축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점포가 개축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전주공업단지가 개발되었고 1965년 세한제지 유치 계기로 팔복동에 전주공단 조성계획이 인가되었다.

공간적으로는 도심 중앙을 지나는 철도 때문에 전주역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북문에서 덕진역 방향, 즉 북서쪽으로 치우쳐 전주시가 성장하였다. 1953년 덕진공원 주변 국유지 21,185평이 전북대학교 교지로 확정되면서 북서쪽에서의 성장축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개통된 팔달로와 전주공단도 이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팽창을 수용하고 이끌기 위해서 1964년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었고 1966년에는 도시 계획이 고시되면서, 전주는 본격적인 도심확장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전주문화원, 1988: 100-103).

이 시기 덕진연못 옆에 있던 덕진운동장이 전북대학교 부지로 넘겨지면서 운동장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덕진연못과 운동장이 갖던 공조체계가 없어졌고 운동장 옆에 있던 공원시설도 사라져 현재처럼 연못 중심의 공간으로 축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덕진공원 방향으로의 도시의 발달은 공원 수요를 높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소나무의 고사와 공원 개선

이 시기 덕진공원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소나무 수림대 소멸이다. 취향정 주변 소나무를 배경으로 하는 1960년대 초반의 기념사진들에서 그 때까지도 소나무가 울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런데 1967년 2월 전북일보에 “솔잎혹파리와 송충이로 취향정 송림이 고사상태에 이르렀다”는 기사가 실릴 만큼 1960년대 후반 소나무의 고사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면담자 진동규(남, 59)씨는 중학생 시절 학교에서 단체로 덕진공원에서 송충이를 잡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소나무의 고사로 1964년에는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고 구내(溝內)를 단장하였다(전주시, 1973: 425)고 한다(그림 4 참조).

3) 일상적 이용: 주변과 경계가 불명확



그림 3. 60년대 노송을 배경으로
자료: 전주시백년사편찬위원회, 2001b: 219.



그림 4. 1964년 촬영 항공사진
자료: 한국국립지리원, 1964.

면담자 이행직(남, 50)씨에 따르면 1973년 수영장이 들어선 곳에는 부친의 논이 있었고 연못에서 낚시질을 하였다고 한다. 연못은 중앙에만 모여 있었으나, 줄 뿌리를 없앤 후 확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과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연못 주변은 진흙으로 미끄러웠고 비가 오면 연못의 물이 주변으로 흘러넘쳤다고 한다. 면담자 이정구(남, 67세)씨는 “예전에는 소나무가 많았고 호수

공원 주변은 거의 호밀밭이었지. 연못에서 민물 새우도 잡아먹었고, 연꽃은 그때도 많았지. 연꽃은 버릴 게 없어. 연밭 따 먹고 연근도 먹고, 꽃도 꺾어서 팔았었어. (중략) 50여 년 전, 그 때도 어김없이 난 친구들하고 연못에서 연밭 따 먹고 놀고 있었는데, 호주끼(연구자: 전투기) 있지. 그거 맛을 뻔 하지 않았겠어. 호주끼가 덮치듯이 낮게 날아오다가 우리들이 막 정신없이 뛰면서 도망가니깐, 그냥 가더라고”라고 회상했다. 공원의 물리적 경계만 불명확했던 것이 아니라 연못의 생태적 순환과 주민들의 삶이 밀접하게 관련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4) 비밀상적 이용: 유원지, 단오제 행사장로서의 덕진공원

유원지(pleasure ground)가 유희, 오락, 운동 등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곳이고, 근린공원은 일상적 휴식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곳이라고 구분한다면(두산동아편집부, 2002), 당시는 “유원지”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덕진공원 옆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이정구(남, 67세)씨와 이행직(남, 50세)씨는 이 당시의 모습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심기 하고 나서 관광 많이 왔었어. 와서 나룻배 타고 막걸리 마시면서 놀고, 장구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때는 배 모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라고 기억하고 있다. 전주시는 확장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이 당시의 여가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팔달로의 개통으로 많은 전주 시민들이 덕진공원을 찾게 되었고, 특히 단오절 물맞이 행사는 성황을 이루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1954년 6월 6일 전북일보는 “ 시내 교외 덕진연못가에는 아침 일찍 제각기 점심밥을 마련해 들고 울긋불긋 고운 옷을 입은 여성들이 모여드는 그 수효는 수만을 헤아리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중략) 못 주변에는 당국의 경교 간판도 무색할 정도로 나체의 여성 목욕객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생략)”라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1967년 6월 13일에는 “덕진 호반에 인파 5만”, “시민의 날로 만칭 관광지”라는 기사들이 실렸다.

4. 1970년대와 1980년대

1) 덕진역 폐쇄와 공원 기본계획

1970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거치면서 덕진공원은 큰 변화를 갖게 된다. 전주시는 기존의 전라선 철도가 도심에 관통하면서 발생시키던 교통, 소음 문제를 완화하고 북서 방향의 도시 발전 축을 동서 방향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전주 도심에 있던 전주역사를 시의 동측 경계 가까이로 이전시켰다. 이에 따라 1974년 덕진역도 사라지게 되고 공원 북쪽은 신시가지 개발 주택지구로 계획되었다. 덕진역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전주역과 팔달로를 잇는 백제로가 개설되고 일대가 업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위와 같은 도시의 변화 속에서도 덕진공원은 주요한 여가 공간으로 그 역할이 지속되었다. 면담자 장정숙(여, 55세)씨는 70년대 초반 주말이면 직장 동료들과 이곳으로 자주 배를 타러 왔었는데, 어느 날 같이 배를 탔던 남자가 결혼해 주지 않으면 배를 뒤집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 면담자 이행직(남, 50세)씨에 따르면 덕진공원 주변 주민들은 당시 공원이용자들을 상대로 포도 같은 과일을 파는 등 상행위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도시 변화와 위락공간 수요에 부응하여, 1974년 전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서는 덕진연못뿐만 아니라 조경단과 건지산 일부가 포함되는 3,625,000㎡를 자연공원으로 고시하였다. 그리고 1975년 덕진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런데 면담자 이정구(남, 67)씨와 이행직(남, 50세)씨에 따르면 이에 앞서 1970년대 초반 실업자 구제 사업으로 연못 내 진흙과 줄 뿌리로 전북대학교와의 사이에 길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1973년 유료 테니스장과 수영장, 이어서 1974년 연못안의 음식점, 어린이놀이터(이명우, 1989: 157) 등 산발적인 시설 도입이 이루어졌다. 현재 공원 내 덕진공원비는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진 1974년에 세워진 것이다. 여기에는 소나무 고사로 약해진 경관을 보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그림 5 참조).

1975년 기본계획에는 덕진연못뿐만 아니라 1974년 자연공원으로 고시된 곳 모두가 포함되어 ‘덕진공원’으로 명명되어 있다. 이것은 전주 시민 증가에 따른 여가 공간 부족과 백제로 건설로 건지산 일대로의 접근성 향상 때문이라 할 수 있다(전주시, 1975). 이 계획에서 전체 공원은 덕진호 지역, 동물원·어린이공원 지역, 조경단·민속촌 지역, 캠프장·피크닉장 지역으로 구분되어



그림 5. 1975년 촬영 항공사진
자료: 한국국립지리원, 1975.



그림 6. 1985년 촬영 항공사진
자료: 한국국립지리원, 1985.

있다.

덕진호 지역 관련 계획만 간단히 살펴보면 유선장 (boating station), 스케이트장, 자전거 코스, 기존 수영장을 양성화하는 수영장, 볼링장 및 커피숍 등이 포함된 게임센터, 한식식당, 낚시장 같은 시설들이 계획되었다. 그리고 현재 전북대학교 일부가 포함되어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1978년 이 계획에 따라 동물원은 건지산에 조성되었으나 덕진호 주변은 시공되지 않았다. 대신 1980년 연화교와 연화정이, 1982년에는 야외 공연장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1977년부터 입장료가 징수되기 시작했다(그림 6 참조).

2) 입장료 징수와 이용의 변화

'해방후~1960년대'에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 초반의 정비 이전까지 공원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고 연못은 주민들 삶의 일부였으며 연꽃 또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공원은 주민들의 일상과 격리되었고 1977년 입장료 징수로 더욱 공고해졌다. 시설의 첨가와 함께 이러한 주변과의 격리는 공원 이용 행태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면담자 이정구(남, 67)씨에 따르면 입장료 징수 이후 공원 내 연못에서의 수영과 낚시, 음주 가무 등은 점차적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면담자 안경례(여, 54세)씨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동물원으로 소풍 왔다가 덕진연못에 들러 보트를 타거나 연꽃 구경했던 기억을 전했다. 면담자 김병수

(남, 35세)씨는 수영장에서 수영했던 것과 담을 몰래 넘어 공원을 이용했던 것을 기억했다.

1987년부터 1988년까지의 덕진공원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이명우, 1989: 157)에 따르면 10만 8천명/ha의 고밀도의 이용을 보였다. 연중 월별 이용객수에서는 단오제와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이 80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봄꽃이 피는 4월이 69만명으로 다음이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 따르면 이용률이 많은 시설은 어린이놀이터, 분수대, 현수교(연화교)였으며 비둘기 먹이주기, 사진촬영, 대화, 술래잡기 등이 일상적 이용행태로 관찰되었다.

5. 1990년대와 현재

1) 기본계획 재수립과 재조성

이 시기 전주시의 큰 변화로 북서쪽으로 치우친 도시 확장의 방향을 동서로 돌리기 위해 서쪽의 효자지구를 신부도심으로 설정하고 개발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를 관광거점으로 설정하는 계획(전주시, 1995)과 기존 하천변과 산악을 활용한 녹지계획(전주시, 2003)으로 덕진공원이 위치한 북부 대생활권은 스포츠, 위락, 문화, 예술 기능이 강화되었다. 1985년 전주도립국악원, 1994년 어린이회관, 2000년 혼불 문학공원, 2001년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 등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1km 반경 내 다양한 시설 설립은 위와 같은 의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1996년 덕진공원에 대한 기본 계획⁹⁾이 다시 수립되어 1997년 시공되었다. 1975년 기본계획이 있었으나 이행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시설들이 확충되었다. 이로 인한 단조롭고 조잡한 공간 구성 및 비합리적 동선체계와 동물원과의 이용 연계성 부족 등이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이 된다. 이 계획에서는 기존 정문과 녹지체계 등을 가능한 한 수용하면서 녹지 부분의 마운딩과 배수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징조각분수, 정자 및 테크, 분수 및 폭포 등의 새로운 시설들도 첨가하고 있다. 그리고 호안선을 정비함으로써 연못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보고서(전주시, 1996: 39)에 따르면 계획가는 정문의 위치며 녹지체계를 대대적으로 변경시키려고 하였으나 행정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7 참조).

1975년에 이루어진 계획은 유원지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이 계획에서는 자연성이 강조된 근린공원의 성격이 강하다. 1997년 공사 후 호안가에 있던 음식점들이 폐쇄되고 2001년 익사 사고로 야외 수영장이 폐쇄되면서 이러한 성격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2001년부터는 무료 개방되어 공원의 공공성이 부각되었다. 근래에 와서 근린공원 성격이 강화된 것은 김동완(2002)이 서울시 여가활동의 변화에서 해석했듯이, 교통의 발달에 따른 여타 관광지로의 접근성 증대 및 다양한 위락시설의 발달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공원 시설과 관련된 공론장에서의 논의 인터넷의 보급과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1990년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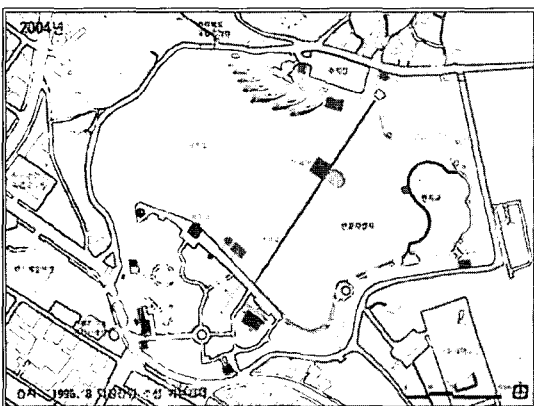


그림 7. 현재의 덕진공원

반 덕진공원과 관련한 몇 가지 공론이 일었다. 공원의 무료화 개방, 연화정 재활용, 벽진폭포에 관련된 것들이다. 1999년 전주시는 공원이용 무료화에 대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법으로 전화통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우범 지대화와 공원 시설물 훼손 우려 등으로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으나, 찬성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덕진공원은 2001년 1월부터 무료 개방되었다.

2002년에는 임대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화정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정비 후 활용에 대한 의견이 우세해, 2003년 정비하여 1층은 매점으로, 음식점이던 2층과 3층은 비어두어 전망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연꽃 생육을 위해서 물억새와 줄 등의 잡초를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공론이 일었다(전북중앙신문, 2003년 7월 4일). 덕진공원은 역사가 깊은 만큼 전주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곳임을 볼 수 있고 여론이 중요해진 사회상도 읽어낼 수 있다.

3) 근린공원의 성격 강화와 연꽃으로 인한 명소화

70년대 후반부터 유원지보다는 근린공원으로의 이용 성격이 강화되었고 90년대 후반 이루어진 재조성은 이러한 성격을 정착시켰다. 면담자 안경례(여, 54세)씨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소풍 장소로 가끔 찾았지만, 근래에는 산책을 위해 매일 나온다고 한다. 인터넷 블로그의 다음 글은 현재 공원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여름마다 연꽃을 선사하고, 오리배에 젊음과 동심을 태우고, 한여름밤의 시원한 음악분수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노인분들의 장기와 국민체조의 터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겐 역사와 위인을 배우는 곳으로 시내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것은 전주시민의 축복이며 자랑입니다”(http://blog.empas.com/an1011102/).

반면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 정부의 적극적 명소 소개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덕진공원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여행 코스로 알려지게 되었다. 7, 8월 덕진공원의 연꽃은 외지인들에게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¹⁰⁾. 이에 전주시는 1994년에 시작된 완산축제를 1998년부터는 완산연꽃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꽃의 문화 상품화에 활용하고 있다.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찾는 이들이 많은 만큼 전주시에서는 볼거리 제공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2001년부터는 분수쇼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야외 영화 상영을 하고 있다.

IV. 덕진공원의 장소성

앞에서 연못 조성부터 현재까지의 덕진공원의 이력을 살펴보았다. 물리적 외관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의미 또한 변화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 시기의 덕진공원의 역할과 의미가 다음 시기의 그것들로 완벽하게 대체되기 보다는 퇴적되어 현재의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다. 퇴적된 의미들은 현재의 덕진공원의 물리적 외관이나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고 구체적인 이용행태와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제방길과 연못 자체는 비보풍수와 관련된다. 덕진공원 옆의 전주이씨 화수각과 전주시민들의 소나무에 대한 기억은 조선시대 지배층의 의도를 일깨운다. 취향정과 전주팔경 중의 하나임을 가리키는 덕진채련(德津採蓮)이라는 별칭은 덕진공원이 가졌던 경관적 가치를 보여준다. 2004년 덕진공원에서 이루어진 용왕제 복원과 기념 학술행사에서는 전주시에 덕진공원이 갖는 위상과 신앙으로서 덕진연못의 의미가 거론되었다. 또한 여전히 단오제면 머리를 감고 사월초파일 방생하는 풍습은 덕진공원이 갖는 민간 신앙적 색채를 잘 보여준다. 비록 선착장의 위치와 배의 종류가 바뀌었지만, 배는 조선시대부터 풍류와 위락의 장으로 이용했던 것에 대한 흔적이기도 하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풍수적, 정치적으로 이상적인 도시를 위해 덕진제와 덕진연못이 필요했다면 근대적 이상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공원이 필요했고 이 곳이 갖던 경관적·위락적 가치는 공원화에 적당했다. 그리고 전주시에 대한 지리적 위상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전주시는 덕진공원이 있는 북서방향으로 성장을 거듭했던 것이다. 인접한 조경단과 경사가 완만해 동물원 같은 시설 설립이 용이하고 자연환경이 풍부한 건지산도 덕진공원의 변화를 도왔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소나무의 고사로 경관적 가치는 감소되었으나, 전주시는 여러 번의 정비와 시설설치로 이를 상쇄하려 하였다. 분수와 수영장이 있던 자리, 현재의 연화정과

연화교가 이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비와 시설설치도 시대마다 성격을 달리한다. 1970년대까지는 유원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당한 시설 위주였으나 점차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이는 교통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위락지로의 접근성 증대와 현대적 위락 시설의 발전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구불구불한 산책길과 연화교 및 연화정은 조성 당시의 건축 및 조경 양식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현재 덕진공원 주변으로 다양한 문화·위락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과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그 역할과 의미가 변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덕진공원이라는 장소에 퇴적된 위와 같은 의미들을 총위화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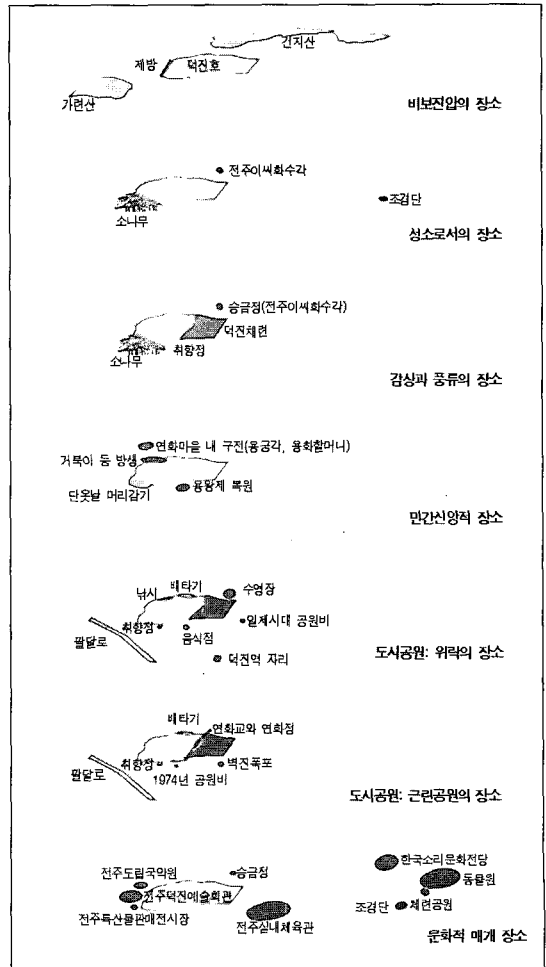


그림 8. 덕진공원의 장소성을 이루는 요소들의 총위화

V. 결론: 연구 결과와 고찰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집단과 개인의 기억을 조사하여 덕진공원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 변화와 이에 대한 덕진공원의 사회적 적응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변화와 적응을 이끌어내었던 원동력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누적된 장소성을 읽었다. 덕진공원은 전주시를 풍수적 이상도시로 완결지으려는 의도로 조성되었고, 이씨 왕조의 성소 공간으로 보호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의도와는 별도로 민중들은 감상과 풍류로 활용했고 '늪은 물'이 담긴 연못은 종교적 색채까지 가졌었다. 근대 전주시의 발전 속에서 이러한 의미들보다는 위락, 휴식의 장으로의 가치가 인정받아 왔다. 그렇다고 덕진공원이 갖고 있던 이전의 역사와 기억들이 완전히 퇴색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현재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덕진공원의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다시 이루어질 덕진공원의 리노베이션 계획에서는 이러한 역사와 기억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거트(Bogart, 1999: 226-257)의 주장처럼 우리는 공공공간 조성에 있어 실용적 측면을 강조해 왔으나, 공간이 갖고 있는 기억들은 소홀히 해왔다. 이제까지 덕진공원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번의 리노베이션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었다. 그런데 퇴적된 많은 기억들 중에서 어떤 기억에 주목해야 할지는 시대적 가치관에 따라서 바뀔 것이다. 다만 동시대 시민들 간의 합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근래 형성되었던 덕진공원에 대한 논의들처럼 합의의 과정은 시대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진솔한 장소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김연금, 2004: 61). 덕진연못이 공원으로 변화되면서 주변 주민들의 일상과 가졌던 물리적, 생태적, 문화적 긴밀한 관계가 사라지고 하나의 섬처럼 격리되어 왔다. 덕진공원과 주민들이 가졌던 이전의 일체적 존재 방식은 앞으로 덕진공원을 전주시민의 문화적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도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이제 보편적 인식이 되었고, 조경분야에

서도 삶의 근원적 복잡성과 우연성이 빚어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Berrizbeitia, 2001: 118). 그렇지만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발언들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으며 조경가에게 무기력감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같은 주장 너머의 지평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구체적인 현장과 그 안에 깃든 삶에 주목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경관의 변화에 작용하는 힘들과 상호적응의 긴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실천의 지침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덕진공원의 장소성을 시간상의 궤적에서 해석한 본 연구는 좁게는 덕진공원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그리고 넓게는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도시'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진화하는 장소' 측면에서 조경가의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주 1. 이규복(2002: 139-168)이 1997년 실시한 전주시의 이미지와 장소성에 대한 연구에서 전주시민들은 전주시를 인 지적 측면에서 기억되는 것, 주요 물리적 경관 요소, 불만한 것, 즐길만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 주 2. 건지산 기슭에 전주이씨의 시조 신라사공공(新羅司空公)의 묘소가 있었다는 언전(言詮)은 영조 때부터 있어왔고 건지산에 시조의 단을 쌓자는 주장들이 있었다고 한다. 갑오동학군이 전주부성을 점령하자,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원지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광무 3년(1896년) 5월 전주이씨 시조의 묘소를 정하고 단을 쌓고 비를 세웠다. 그리고 고종이 친히 '대한조경단비(大韓肇慶壇碑)'라고 쓴 비를 세웠다(전주문화원, 1988: 29-33).
- 주 3. 전주 팔경은 1. 기린토벌(麒麟吐月), 2. 한벽정연(寒碧晴烟), 3. 남고모종(南固暮鐘), 4. 다가사후(多佳射候), 5. 비비락안(飛飛落雁), 6. 덕진채연(德津採蓮), 7. 위봉폭포(威風瀑布), 8. 동포귀범(東浦歸帆)이다. 부성삼화(府城三花)는 1. 동고산 진달래, 2. 다가봉 임화화, 3. 덕진지당 연화이다.
- 주 4. 박기순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상인 아래에서 장사를 배워 많은 돈을 벌었고 삼남은행 두류를 지내기도 했다(전주시 백년사편찬위원회, 2001a: 74-76).
- 주 5. 도시의 팽창으로 일본에서는 1919년 4월 4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계획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표면화되었다.
- 주 6. 현대 운동경기는 갑오개혁이후 구미 일본 등으로부터 소개된 새로운 교육사상을 배경으로 신교육으로 실시되었다. 갑오개혁이후 1895년 2월 2일 고종이 내린 교육칙서가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 학교기관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서울시, 1983: 811).
- 주 7. 일제시대인 1938년, 목표연도를 1968년으로 하는 전주 최초의 도시계획인 '시가지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집행된 사업은 거의

없었다(김현숙, 2004: 176).

- 주 8. 1896년 태어나서 1980년 사망하였다. 화성학교와 전주 농림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진안미술협회 회장 이용엽씨의 부친이다. 이 일기장은 면담자 이인철(남, 76)씨가 제공해주었다.
- 주 9. 이 보고서에서는 계획의 배경으로 '전주시 상정공원 조성의 필요성, 질 높은 공원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 증가, 동물원과 연계한 공간계획의 필요성, 공원 정문 앞의 혼잡성, 단조롭고 조잡한 공간 구성 및 비합리적 동선체계, 토양조건에 따른 수목생육 불량과 단순한 식재패턴 개선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 주 10. 김영석이라는 사진작가가 운영하는 "사진 이야기(<http://photo2self.com>)"라는 홈페이지에서 여름철 연꽃을 찍기 적당한 곳 중의 하나로 전주덕진공원을 추천하고 있고 이 자료는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 있다.

인용문헌

1. 강신용(1885)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서울: 도서출판 조정.
2. 강영경(2004) 전주지역의 역사와 용왕제의 성격. 전주 용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학술대회 자료집. pp. 71-82.
3. 김동환(2002) 20세기 서울시민의 여가생활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두규(2004) 풍수지리로 본 전주(전주역사박물관편,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 pp. 299-331.
5. 김방룡(2004) 불교 속에 나타난 용왕신앙. 전주 용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학술대회 자료집. pp. 21-35.
6. 김연급(2004) 소통적 조경계획 및 설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김현숙(2004) 지도를 통해 본 전주의 근현대 공간구조 변화(전주역사박물관편,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 pp. 163-200.
8. 동국여지승람(1481) 전주부 산천조.
9. 두산동아 편집부(2002) 두산동아 세계백과사전. 서울: 두산동아.
10. 서울시(1983) 서울 六百年史 第三卷.
11. 송화섭(2004a) 전주부성과 덕진용왕제. 전주 용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학술대회 자료집. pp. 53-69.
12. 송화섭(2004b) 전주의 단오절 성황제(전북전통문화연구소편, "전주의 역사와 문화"). 전주시: 신아출판사. pp. 103-138.
13. 신정일(2004) 다시 쓰는 택리지 2. 서울: 휴머니스트.
14. 이규복(1988)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1): 35-45.
15. 이규복(2002) 한국의 도시 경관. 서울: 열화당.
16. 이명우(1989) 공공옥외공간의 계획 및 설계를 위한 환경조사 및 분석에 대한 기초 연구. 전북대학교 농대논집 20: 153-169.
17. 이석환(1998) 도시가로의 장소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전주문화원(1988) 우리전주 문화유산.
19. 전주역사박물관(2004)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
20. 전주시(1975) 덕진공원기본계획.
21. 전주시(1995) 도시계획재정비.
22. 전주시(1996) 덕진공원 조성기본계획.
23. 전주시(2003) 도시기본계획.
24. 전주시 편(1973) 전주시사.
25. 전주시 편(1986) 전주시사.
26. 전주시백년사편찬위원회(2001) 이야기로 듣는 전주 전주사람들. 서울: 등사기.
27. 전주시백년사편찬위원회(2001) 신문으로 본 전주 전주사람들. 서울: 등사기.
28. 정진홍(1994) 물과 한국 종교(최정호편, "물과 한국인의 삶"). 서울: 나남출판. pp. 149-164.
29. 조선왕조실록(1541) 중종 20년 8월.
30. 최창조(1990)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울: 서해문집.
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 한국 구비문학대계(전주시·완주군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2. 한국한글학회 편집부(1981) 한국지명총람. 서울: 한글학회.
33. Abramson, D.(1999) Make history not memory. Harvard Design Magazine 9: 78-83.
34. Berrizbeitia, A.(2001) Scales of Undecidability In J. Czeniak, ed., Downstview Park Toronto. New York PRESTEL. pp. 116-125.
35. Bogart, M. H.(1999) Public space and public memory in New York's City Hall Park. Journal of Urban History 25(2): 226-257.
36. 동아일보(1939) 명승 덕진 호반에서 자전거 경기회 오는 13. 14양일 개최. 5월 5일: 3.
37. 전북일보(1954) 예전에 보지 못한 풍성. 어제 단오절의 덕진은 인산인해. 6월 6일: 2.
38. 전북일보(1954) 팽창하는 전주시. 9월 24일: 2.
39. 전북일보(1967) 취향정 송림 보호책 마련. 2월 22일: 3.
40. 전북일보(1967) 덕진 호반에 인파 5만. 6월 13일: 3.
41. 전북일보(1967) 시민의 말로 망친 관광지-취향정 송림 재생길 막연. 6월 13일: 3.
42. 전북중앙신문(2003) 덕진언못 잡초 제거 논란. 7월 4일: 9.
43. 전주면 작성 덕진공원과 운동장사무처리 서류(1929). 9월 27일.
44. 전주시(1938) 1938년 전주시까지 계획 평면도.
45. 한국국립지리원(1964) 1964년 촬영 항공사진.
46. 한국국립지리원(1975) 1975년 촬영 항공사진.
47. 한국국립지리원(1985) 1985년 촬영 항공사진.
48. 한국국립지리원(1985) 1985년 촬영 항공사진.
49. <http://blog.empas.com/an1011102/>
50. <http://photoself.com>

원 고 접 수: 2005년 5월 24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5년 8월 3일

3인인명 심사필